

구성적 긴장으로서의 본질주의

— 1990년대 ‘모성성’과 ‘여성성’ 논쟁

인 아 영*

요약

본고는 1990년대 한국문학비평에서 ‘모성성’과 ‘여성성’의 본질주의적 성격이 당대 비평의 한계로 작동했던 동시에 새로운 해석을 만들어낸 조건이었음을 밝힌다. 당대 비평은 기존 문학 담론이 은폐해온 성차를 가시화하기 위해 ‘모성성’, ‘여성성’과 같은 범주를 적극적으로 호출했지만, 그러한 범주는 ‘여성’을 고정된 본질로 환원할 위험을 동반했다. 반대로 본질주의를 피하기 위해 ‘여성’ 범주를 해체하거나 부정하는 경우,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과 성차의 정치적 의미가 약화될 수 있었다. 본고는 이처럼 차이를 범주화하려는 시도와 그 범주의 본질화를 비판하려는 시도가 서로를 구성하며 맞물리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적 긴장(constitutive tens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먼저 본고는 크리스테바·이리가레·식수 등 프랑스 후기 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을 수용하는 과정을 검토하여, 여성적 차이를 정립하려는 시도와 ‘여성’ 범주의 본질화를 경계하는 문제의식 사이의 딜레마를 살펴본다. 이어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둘러싼 비평을 분석함으로써, 모성성에 대한 긍정과 본질화에 대한 비판 사이에서 작품의 페미니즘적 성취를 판별하는 기준이 분화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전경린 소설에 대한 상반된 독법을 분석함으로써, 여성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독법이 여성적 탈주를 독해하는 가능성을 여는 동시에 여성을 신비화하거나 추상화할 위험을 낳았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본고는 본질주의가 1990년대 한국문학비평에 남은 단순한 이론적 오류가 아니라, 그에 대한 비판과 재전유를 통해 다양한 해석과 판단 기준을 산출한 문제적 조건이었다고 주장한다. 본질주의를 둘러싼 구성적 긴장은 당대 한국문학비평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만들어내면서 여성적 차이를 사유하는 비평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수료

적 언어를 분화하는 동력이었다.

주제어: 1990년대 한국문학비평, 본질주의, 구성적 긴장, 여성적 차이, 모성성, 여성성, 페미니즘 문학비평, 양귀자, 전경린

목차

1. 서론
2.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과 ‘여성적 차이’의 이중 구속
3. ‘모성성’의 긍정과 본질화—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둘러싼 논쟁
4. ‘여성성’의 비고정화와 신비화—전경린 소설을 둘러싼 논쟁
5. 결론

1. 서론

1990년대 한국문학비평은 기존 문학 담론이 보편성의 이름으로 은폐해 온 성차를 가시화하고 여성문학비평의 독자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성’, ‘모성성’, ‘여성성’, ‘여성적 글쓰기’와 같은 범주를 적극적으로 호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주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여성의 차이를 고정된 본질로 환원할 위험이 발생했으며, 반대로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성성을 해체하거나 유동화할 경우에는 여성의 구체적인 경험과 성차의 정치적 의미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었다. 본고는 이처럼 본질주의적 범주의 필요성과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충돌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했던 관계에 주목하여, 그것이 어떻게 1990년대 문학비평의 다양한 해석 및 판단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최근의 연구사적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페미니즘 리부트 이후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을 재조명하려는 연구는 여러 방향에

서 축적되어 왔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과 1990년대 여성문학 비평 사이의 연속성과 단절을 되짚는 연구¹⁾, 젠더화된 비평장 안에서 권력 관계에 의해 발화 위치가 어떻게 분화되었는지를 추적하는 연구²⁾, 문단의 잡지 매체나 출판사가 여성문학을 전유·배치했던 방식을 짚는 연구³⁾ 등이 대표적이다. 나아가 1980~90년대 한국문학에 대한 연구는 2010년대 이후로 크게 두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한 연구⁴⁾를 따라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하나는 문화운동론의 관점에서 무크 운동, 노동문학 운동, 여성해방문학 운동 등 문학 바깥의 실천적 기반을 복원함으로써 문학사를

- 1)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박현채와 조한혜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이해령, 「빛나는 성과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2016;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고정희 시를 읽기 위한 시론」,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이해령, 「여성해방문학의 저자란 무엇인가」,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 2)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백지은, 「진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페러독스’의 페러독스」,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허윤, 「1990년대 페미니스트 여성 대중의 등장과 잡지 『페미니스트저널 if』의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44, 한국여성문학학회, 2018; 임지연,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제 비판」, 『한국시학연구』 54, 한국시학회, 2018;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한경희, 「여성과 경험의 괴리—19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글쓰기’ 비평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 3)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학회, 2016;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8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 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제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학회, 2021;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 4) 배하은, 위의 글, 2022.

탈구축하는 작업이며, 다른 하나는 비평 엘리트와 대중 독자의 위치를 재조정함으로써 그간 비평의 권위에 가려져 있던 독자 공동체를 문학사 서술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으로 수렴되었다고 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문학을 단지 자율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그것이 생산·유통·수용되는 물질적 조건과 관계망의 산물로 재사유한다는 점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을 특정한 장(場)의 효과로 다시 파악할 수 있는 유효한 시각을 제공해주었다.

다만, 문학의 제도적 위치와 매체 및 독자의 성격을 밝히는 것만으로는 온전히 해명되지 않는 질문이 남는다. 이를테면 ‘여성적 글쓰기’, ‘모성성’과 같은 는 왜 당대 작품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채택되었는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당대 비평의 이론적 배경과 개념적 전제를 검토하고 그것이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성’과 ‘모성성’은 어떤 경우에는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부과한 본질주의적 규범으로 비판받으면서도, 다른 경우에는 기존의 남성 중심적 문학과 질서를 넘어설 여성적 차이의 근거로 긍정되었다. 이처럼 당대 비평에서 빈번하게 쓰였던 동일한 개념이 상반된 가치판단을 산출했다는 사실은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을 제도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작품을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한 밑바탕이 되는 개념의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하나의 개념이 문학작품에 대한 상이한 판단을 배태할 수 있었던 까닭은, 여성의 ‘본질’을 무엇으로 규정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그 개념들에 내재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의 성취와 한계를 함께 살피기 위한 문제로 다룬 연구에서 임지연은 자연적 모성성 및 해체적 여성성을 구현한 여성시의 성취에 성 본질주의와 근대적 젠더 질서를 되풀이하는 역설이 내재해 있음을 밝힘으로써, 1990년대 여성시의 복수성과 이념적 복합성을 조명하였다.⁵⁾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이어받되, 작품을 둘러싼 비평적 논쟁으로 분석의 초점을 옮겨 본질주의를 둘러싼 상반

된 판단이 당대 비평의 평가 기준을 어떻게 분화시켰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는 이처럼 차이를 범주화하려는 시도와 그 범주의 본질화를 비판하려는 시도가 서로를 구성하며 맞물리는 관계를 설명하게 위해 ‘구성적 긴장(constitutive tension)’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구성적 긴장’이라는 개념을 해명하는 데에는 ‘전략적 본질주의(strategic essentialism)’라고 불리는 스피박의 논의가 중요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1984년 엘리자베스 그로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피박은 여성들 사이의 계급적·인종적·민족적 차이를 고려할 때 ‘여성’을 단일하고 보편적인 실체로 설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모든 보편적·본질주의적 범주를 거부할 경우 여성 억압을 집단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로 발화하기 어려워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질주의적 범주는 인식론적으로 참된 것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위해 상황적으로 선택되고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⁵⁾ 스피박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하위주체 연구: 역사기술을 해체하기」⁶⁾에서 더욱 구체화한다. 식민주의적인 기록과 엘리트 중심의 지식체계 속에서 단일하고 투명한 ‘서발턴 의식’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발턴의 역사적 행위성을 가시화하고 엘리트 중심의 역사서술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일정한 정치적 범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스피박은 이러한 작업을 두고 명백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입각한 본질주의의 전략적 사용이라고 평가한다. 이때 ‘전략적 본질주의’란 집단의 정체성이나 의식을 고정적이고 동질적인

5) 임지연,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체 비판」, 『한국시학연구』 제53호, 한국시학회, 2018.

6) Gayatri Chakravorty Spivak, “Criticism, Feminism and the Institution: An Interview with Gayatri Chakravorty Spivak,” interview by Elizabeth Grosz, *Thesis Eleven*, vol. 10-11, no. 1, 1985, pp. 182-184. 스피박이 처음부터 ‘전략적 본질주의’를 완결된 개념으로 정식화한 것은 아니다. 이 인터뷰에서 그는 “보편주의적 담론이 아니라 본질주의적 담론을 다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고, 훗날 이를 ‘본질주의의 전략적 사용’으로 지칭했다.

7)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스피박, 태혜숙 옮김, 「하위주체연구: 역사기술을 해체하기」, 『다른 세상에서: 문화정치학 에세이』, 여이연, 2008.

본질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주의 불완전성과 위험을 인식하면서도 특정한 정치적 목적과 상황을 위해 잠정적으로 사용하는 자기비판적 전략을 뜻한다. 그러나 스피박에게 이러한 전략은 모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 이론이 아니었다. 그는 이후 본질주의의 전략적 사용이 학문적 본질주의를 정당화하는 알리바이로 전환되고, 특정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보편적인 이론이나 고정된 정체성으로 굳어질 가능성을 경계했다.⁸⁾ 따라서 본질주의 비판의 목적은 본질주의적 범주를 오류로 판정하여 폐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사용의 위험성을 동시에 인식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스피박의 이러한 논의는 본질주의적 범주의 필요성과 위험을 상호 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고가 제시하는 ‘구성적 긴장’의 의미를 보충해준다.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 역시 여성 내부의 차이를 소거하거나 여성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기존 문학 담론이 은폐해온 성차를 가시화하기 위해 ‘여성’, ‘모성성’, ‘여성성’과 같은 범주를 완전히 포기할 수 없었다. 물론 당대 비평가들이 스피박의 개념을 직접 수용했거나 본질주의적 범주를 의식적인 전략으로 채택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논의는 본질주의의 위험이 여성문학비평의 외부에서 사후적으로 발견되는 결함이 아니라, 여성적 차이를 비평의 언어로 구성하려는 실천 자체에 내재한 문제임을 해명하는 참조점으로 기능한다. 스피박의 논의가 본질주의적 범주를 어떤 조건에서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주목한다면, 본고가 제시하는 ‘구성적 긴장’은 그 범주를 사용하려는 요구와 비판하려는 요구 사이의 사이의 길항에 주목한다. 따라서 본고는 당대 비평가들이 문학비평에서 본질주의를 수용했는지 아니면 거부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보다, 그러한 두 요구가 구체적인 작품의 해석과 평

8) Spivak, "Subaltern Studies: Deconstructing Historiography," In *Other Worlds: Essays in Cultural Politics*, New York: Methuen, 1987, p. 205; Spivak, *Outside in the Teaching Machine*, New York: Routledge, 1993, p. ix.

가 속에서 어떻게 맞물렸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고는 세 개의 본론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2장에서는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을 둘러싼 당대 문학장의 논의를 살펴 보고, 여성적 차이를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본질화해서는 안 되며 여성 범주를 비판하면서도 그 정치적 효력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중구속을 규명한다. 3장에서는 크리스테바, 이리가레, 식수의 모성론에서 나타나는 이론적 긴장을 참조하면서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둘러싼 비평적 논쟁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모성성을 여성적 차이의 근거로 긍정하려는 시도와 그것을 여성의 본질적 속성으로 고정하는 담론을 비판하려는 시도가 어떻게 충돌했는지를 밝힌다. 4장에서는 전경린 소설을 둘러싼 상반된 비평적 독법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여성성을 고정된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비고정화의 전략이 여성적 탈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동시에 여성성을 신비와 초월의 영역으로 추상화할 위험을 어떻게 낳았는지 검토할 것이다.

2.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과 ‘여성적 차이’의 이중구속

1990년대 초중반은 외국의 페미니즘 이론이 국내에 활발하게 번역·소개된 시기였다. 초기에는 페미니즘 이론의 역사와 주요 쟁점을 정리한 개론서와 교재가 다수 출간되었고⁹⁾,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크리스테바와 이리가레를 비롯한 개별 이론가들의 저서가 잇따라 번역되었다.¹⁰⁾ 이러

9) 이소영·정정호 편,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새로운 문화정치학을 위하여』, 한신문화사, 1992; 크리스 워턴, 조주현 옮김,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3; 토릴 모이,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10) 대체로 1990년대 초중반에는 이론의 약사(略史)나 개론서, 교재류가 먼저 번역되었고, 1990년대 중후반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개별 이론가들의 저서가 번역되기 시작했다. 이를테면

한 흐름 속에서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은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주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부상했다.¹¹⁾ 그러나 그것은 일관된 체계를 갖춘 하나의 이론으로 수용된 것이 아니었으며, 여성적 차이를 새롭게 사유할 가능성과 페미니즘의 정치적 근거를 약화할 위험을 동시에 지닌 논쟁적인 대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러한 양가적인 반응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글이 김영희·이명호·김영미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포기」¹²⁾이다. 이들은 이리가래, 식수, 크리스테바를 비롯한 여러 이론가의 논의를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이라는 범주 아래 검토하면서, 그것이 상반된 두 방향의 위험에 놓여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는 여성을 남성적 질서의 타자로 강조함으로써 여성적 차이를 고정하고 남녀의 구별을 다시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여성적 차이에 대

1995년부터 2004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크리스테바, 이리가라이, 식수의 대표 저작들이 잇달아 번역, 출간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00년대 중반까지 이어지면서 당대 여성문학 비평뿐 아니라 한국 지성사 전반이 이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되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번역 현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저자	역자	제목	출판사	출판연도	비고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영	사랑의 역사	민음사	1995	대우학술총서 문학/인문번역73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언어 그 미지의 것	민음사	1997	
줄리아 크리스테바	유복렬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푸른숲	1998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사랑의 정신분석	민음사	1999	
줄리아 크리스테바	서민원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뤼스 이리가라이	권현정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공감	1997	
뤼스 이리가라이	박정오	나, 너, 우리	동문선	1998	
뤼스 이리가라이	이은민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뤼스 이리가라이	박종오	근원적 열정	동문선	2001	
엘렌 식수	박혜영	매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 11) 손유경은 이를 1992년경 포스트모더니즘 담론이 양적으로 팽창한 국면 속에서 이 두 담론이 만나게 되었다고 짚어낸다.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377~416면.
- 12)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포기」, 『여성과사회』 3, 한국여성연구회, 1992.

한 긍정은 역사적·사회적 조건과 무관한 여성성을 상정함으로써 본질주의로 되돌아갈 수 있다. 다른 하나는 데리다의 해체론을 경유하여 여성이라는 범주 자체를 해체하는 방향이다. 이 경우 성별 정체성의 고정성을 비판할 수 있지만, 동시에 여성 억압을 설명하고 여성해방의 주체를 구성할 정치적 근거까지 약화할 수 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결국 여성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경우에는 본질주의로 회귀할 수 있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성 범주를 해체할 경우에는 여성해방론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워진다는 딜레마였다.

태혜숙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¹³⁾ 역시 이러한 문제를 다루면서, 상이한 이론적 흐름을 구분함으로써 논쟁의 지형을 보다 세분화한다. 태혜숙은 ①이리가레, 크리스테바, 식수의 프랑스 여성해방론, ②초도로우, 아드리엔 리치 등의 미국 여성중심이론, ③프랫, 드 로레티스, 하트삭 등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을 각기 다른 흐름으로 구별한다. 이는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 일반을 동일시하지 않고, 각각이 여성적 차이와 여성 주체를 사유하는 방식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었다. 태혜숙은 “포스트모더니즘을 무조건 받아들이거나 배척하기보다 하나의 이론으로서 갖는 의의와 한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아가 기존 이론들과 접목시키고자 할 때 어떤 문제를 안게 되며 어떤 방향으로 진전시켜야 할 것인지 진지하게 탐구하도록 해야 할 것”¹⁴⁾이라고 말하면서, 새로운 이론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이 여성해방론의 기존 문제의식과 어떠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려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태도는 여성적 차이를 강조하는 이론이 기존 여성해방론의 보편적인 여성 주체를 비판하는 데에는 기여하지만, 차이에 대한 지나친 강조가 여성의 유대와 집단적 실천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기인하는

13) 태혜숙,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 『이론』, 1993.

14) 위의 글, 61면.

것이였다. 그는 좁은 의미의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에 대해서는 “여성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너무 자의식적으로 주목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의 유대감을 해치는 결과를 낳으며 여성해방운동에 분열을 갖고 왔다”¹⁵⁾며 비판적 거리를 두는데, 이는 여성 간의 차이를 무한히 세분하면 여성 억압을 집단적인 정치 문제로 제기할 공통의 기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논지이다. 따라서 태혜숙의 논의에서도 ‘여성’이라는 범주는 고정된 본질로 승인될 수 없으면서도 여성해방의 정치적 주체를 구성하기 위해 완전히 폐기될 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의 논의가 프랑스 여성해방론과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을 구분하면서도 양자의 성과와 위험을 함께 검토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이중적인 요구 때문이였다.¹⁶⁾

이러한 논의는 1990년대의 페미니즘 이론 수용이 외국 이론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당대의 논자들은 여성적 차이를 남성 중심의 보편성에 맞서는 이론적, 정치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에 주목하면서도, 그것이 여성을 고정된 타자로 본질화할 위험을 동시에 비판했다. 또한 여성 내부의 차이와 정체성의 유동성을 사유할 필요를 인정하면서도, 여성 범주의 해체가 여성 억압을 발화하고 집단적 실천을 조직할 근거까지 무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따라서 이 논쟁의 핵심은 본질주의와 반본질주의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데 있지 않았다. 바로 여성적 차이를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본질화하지 않아야 하고, 여성 범주

15) 위의 글, 82면.

16) 같은 시기 남성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포스트모더니즘과 페미니즘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속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상당한 이견 속에서 이루어졌다. 예컨대 김성곤·김옥동·도정일·권택영·신정현·이정호가 참여한 한 좌담에서는 포스트모더니즘과 모더니즘의 관계, 한국적 토착화 가능성, 서구 이론의 무분별한 수입에 대한 우려 등을 두고 참여자들 사이에 상당한 이견이 오갔으며, 김성곤은 이 자리에서 “여성차별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포스트모더니스트로 내세우는 것을 “고급 허위 또는 사이비”(75면)라 비판하기도 했다. 이는 당대 학계 전반이 공유하고 있던 이론적 불안정성에 가까웠음을 시사한다. 권택영·김성곤·김옥동·도정일·신정현·이정호, 「특집좌담: 포스트모더니즘의 여러 쟁점들」, 『미국학』 제 15호, 서울대 미국학연구소, 1992, 73-94면.

를 비판하면서도 그 정치적 효력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두 요청을 동시에 감당하는 데 있었다.

이러한 긴장의 의미는 이후의 여성문학비평에서 ‘여성성’이라는 개념이 사용된 방식을 둘러싼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김영희·이명호·김영미와 태혜숙이 공유했던 우려는 단지 새로운 이론을 둘러싼 일시적인 신중함에 그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여성문학비평이 맞닥뜨리게 되는 본격적인 개념적 난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를 테면 2000년대 문학비평이 ‘탈근대’, ‘탈주체’, ‘탈중심’, ‘혼종성’, ‘위반’, ‘유머’ 등의 개념을 통해 성차를 지우는 비평 담론을 구사하게 되면서 ‘여성성’이 더 이상 여성문학의 고유한 자질이 아니라 당대 문학 전반을 해석하는 보편적 개념으로 재규정되었다는 진단¹⁷⁾, ‘여성성’이 여성비하적인 것에서부터 여성해방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지나치게 폭넓게 사용되면서 개념 자체가 모호해졌다는 비판¹⁸⁾, 1990년대 페미니즘 문학이 “금칠을 허용할 정도로 찬란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는 그 과급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는 판단¹⁹⁾은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 수용에서 나타난 ‘여성적 차이’에 대한 긴장이 이후 여성문학비평의 전개 과정에서도 다른 형태로 지속되었음을 시사한다. 물론 이를 1990년대 외국이론 수용이 직접 낳은 결과로 환원할 수는 없지만, 이는 여성성을 고정된 본질로 규정하지 않으면서도 성차를 설명하는 비평적 효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가 이후에도 쉽사리 해소되지 않는 중요한 논점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론적 논쟁이 중요했던 까닭은 여성문학비평이 기존 문학 담론이 보편성의 이름으로 은폐해온 성차를 드러내기 위해 ‘여성’과 ‘여성성’

17)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0호, 영미문학연구회, 2006, 41면.

18)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문예중앙』, 2005년 겨울호, 329면.

19) 김미현, 「‘상상’의 페미니즘 문학—페미니즘 문학 연구의 현황과 한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13면.

을 적극적으로 구성해야 하는 동시에, 그 범주를 고정된 본질로 확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여성 주체 내부의 차이와 복수성을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여성성’과 ‘여성적 글쓰기’를 둘러싼 논의는 특정 이론의 유행이나 작품 해석상의 취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여성문학의 비평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근거가 지닌 본질주의적 위험을 계속 조정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 속에서 전개되었다. 이처럼 여성적 차이에 대한 긍정과 여성 범주의 해체가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필요로 했다는 점에서,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은 어느 한쪽으로 해소될 수 없는 이중구속을 드러낸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중구속은 당대 페미니즘 담론이 극복하지 못한 결함에 그치는 것일까? 본고는 이어지는 장에서 여성 범주의 정치적 효력을 둘러싼 대립이 페미니즘 문학에 있어서 본질주의를 둘러싼 여러 비평적 입장을 분화하고, 페미니즘의 주체와 문학적 재현을 새롭게 질문하게 했다는 데 주목한다.

3. ‘모성성’의 긍정과 본질화—양귀자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을 둘러싼 논쟁

앞서 살펴본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 수용의 이중구속은 ‘모성성’을 둘러싼 논의에서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모성성은 임신·출산·양육을 비롯한 여성의 신체적 경험과 어머니와 딸을 포함한 여성들 사이의 관계를 사유할 언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험과 관계를 여성에게 고유한 것으로 규정하는 순간, 모성은 여성을 특정한 신체와 역할에 귀속시키는 본질주의적 규범으로 바뀔 수 있다. 따라서 문제는 모성을 긍정할 것인지 부정할 것인지를 미리 결정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성이 어떤 관계 속에서 형성되며 그것을 호출하는 서술이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의미화하는 데 있다.

1990년대에 활발히 소개되고 논의된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의 질서가 규정한 모성’과 ‘그 질서를 넘어설 모성적 가능성’을 구분하고자 했지만 후자를 다시 모성적 신체와 어머니의 목소리에 기대어 사유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긴장을 집약적으로 드러낸다. 이를테면 크리스테바는 상징계에 선행하면서도 그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기호계(semiotic)와 모성적 육체를 연결지음으로써 모성을 언어와 주체 형성의 근원적 자리로 이론화했지만²⁰⁾, 이는 곧 모성을 여성 고유의 본질적 속성으로 다시 못박을 위험을 안고 있었다. 이리가레 역시 어머니-딸 관계를 여성적 계보와 상상계 회복의 매개로 사유했지만²¹⁾, 이 또한 여성적 차이를 모성이라는 하나의 좌표로 수렴시킨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러한 긴장은 여성을 유동적이고 비고정적인 존재로 사유한 식수에 대해서도 발견된다. 식수는 『메두사의 웃음』에서 여성적 글쓰기의 기원을 결코 중단됨 없이 올림을 간직한 여성의 목소리와 최초의 사랑의 노래, 그리고 행복의 근원으로서의 어머니와 좋은 모유에서 찾으면서, 여성은 흰 잉크로 글을 쓴다고 선언한다.²²⁾ 여성적 글쓰기를 고정된 여성의 속성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이론이 어머니의 목소리와 모유라는 신체적 이미지에 기대고 있다는 점에서, 식수의 논의 역시 여성성을 비고정화하면서 그 근원을 모성적 신체에 다시 귀속시키는 양면성을 지닌다.²³⁾ 단, 이

20) 크리스테바가 상징계 이전의 '기호계(semiotic)' 개념을 정식화한 것은 그의 국가박사학위논문에서 기원한 『시적 언어의 혁명』(La Révolution du langage poétique, 1974)에서다. 모성적 육체를 언어·주체 형성의 근원적 자리로 사유하는 논의는 이후 「스타바트 마테르(Stabat Mater)」에서 본격화되는데, 이 글은 크리스테바의 『사랑의 역사』(Histoires d'amour, 1983)에 수록되어 있다.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옮김,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스타바트 마테르」는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인환 역, 『사랑의 정신분석』, 민음사, 1999 참조.

21) 뤼스 이리가레, 김미현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뤼스 이리가레, 김미현 옮김, 『성차의 윤리』, 동문선, 2000.

22) 엘렌 식수, 박혜영 역, 「메두사의 웃음」,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23) 이와 관련된 비판으로는 토릴 모이,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Judith Butler, "The Body Politics of Julia Kristeva," Hypatia 3(3), 1988 참조.

들의 모성론은 프랑스 후기구조주의 페미니즘 이론이 끝내 해소하지 못한 단순한 결합이라기보다, 모성적 차이를 긍정하면서도 그것을 여성의 본질로 고정하지 않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상해야 했던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론적 문제와 1990년대 한국문학비평의 개별 논쟁 사이에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는 없다. 다만 당대 작품을 둘러싼 비평에서도 모성이 여성의 삶을 설명하는 언어이면서 그 삶을 일정한 역할로 제한하는 규범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모성을 여성의 본질로 확정하는 담론에 대한 문학장의 비판은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논쟁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선택』은 정부인 장씨의 삶을 통해 자녀의 양육과 현모양처의 역할을 여성의 자발적 ‘선택’이자 성취로 제시한다. “여인의 가장 중요한 생산은 자녀이며 가장 위대한 성취는 그 양육”이라는 문장은 모성을 여러 삶의 가능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여성의 삶이 도달해야 할 중심적인 가치로 설정한다.²⁴⁾ 작품은 장씨가 그 삶을 능동적으로 택했다고 서술하지만, 바로 그 선택이 어떠한 역사적·사회적 조건에서 이루어졌는지가 비평의 쟁점이 되었다.²⁵⁾ 당시 이 소설을 둘러싼 논쟁은 상당한 분량의 기사와 평론, 시사적 논평을 생산했지만, 논의는 점차 작품의 비평적 쟁점보다는 이문열 개인의 입장과 의도를 둘러싼 공방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남성 지식인 중심의 담론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현모양처론과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이 새롭게 재구성하고자 했던 모성 담론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논쟁은 당대 모성 담론의 쟁점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를테면 이선옥은 『선택』의 역사적 소재가 작품 안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분석하면서,

24)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148면.

25) 『선택』을 둘러싼 논쟁의 전개에 대해서는 이인화,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해석 논쟁」,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안남연, 「이문열의 『선택』과 페미니즘 논쟁」,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참조.

장씨의 삶이 놓였던 구체적인 역사적 관계보다 현재의 여성에게 제시할 규범을 정당화하는 기능이 앞선다고 비판한 바 있다.²⁶⁾ 그는 제임슨의 ‘역사주의에 의한 역사의 소멸’을 원용하여 작품의 역사 재현을 비판하고, 여성의 노동을 통제하는 가족과 국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에는 월비의 가부장제 논의를 참조함으로써²⁷⁾, 작품이 페미니즘의 자기 성취를 이기주의와 결부시키고 이를 자본주의의 간계로 설명하는 한편, 그 대안으로 봉건적 가족주의와 현모양처의 형상을 내세운다고 읽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선옥이 모성의 가치 자체에 찬반을 표시하는 데 머무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는 현모양처 규범이 여성의 저임금·하위직 노동을 정당화해온 관계를 지적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선택』은 여성의 주변화에 대한 책임을 페미니즘에 돌리면서 그 주변화를 떠받쳐온 가족 및 노동의 질서를 오히려 대안으로 제시하는 작품이 된다. 이 글에서 ‘자발적인 모성’이라는 서사는 여성이 선택하는 행위를 보여주기보다 그 선택의 조건을 보이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모성의 본질화에 대한 비판이며, 모성적 관계를 여성적 차이의 자원으로 긍정하려는 시도 및 그 긍정의 위험을 함께 감당하는 문제는 충분히 전개되지 않는다. 그러한 문제는 모성 자체를 거부하는 여성소설에 대한 비평을 함께 살펴볼 때 더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은 그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다. 작품은 여성문제상담소 상담원인 스물일곱 살의 강민주가 인기 영화배우 백승하를 납치, 감금하여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려 하지만,

26) 이선옥, 「신현모양처,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혹(迷惑)—이문열의 『선택』, 『실천문학』 47, 1997년 여름호.

27) 이선옥은 역사적 소재의 맥락이 소거되는 문제를 비판하는 데 프레드릭 제임슨의 논의를, 신현모양처론과 여성 노동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실비아 월비의 논의를 원용한다. 프레드릭 제임슨, 「포스트모더니즘—후기 자본주의의 문화논리」,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도서출판 티, 1989, 159~167면; 실비아 월비, 유희정 옮김, 『가부장제 이론』,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6, 47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면서 백승하를 질투하던 황남기에게 살해당하는 과정을 그린다. 이 작품은 리얼리즘적 시각과 페미니즘적 시각 양측에서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특히 백승하가 자신을 버린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고백한 뒤 강민주가 점차 그에게 마음을 열고, 부드러움과 모성성을 대안적 가치로 받아들이며 두 사람의 관계가 애정 관계로 변모하는 대목이 쟁점이 되었다. 이를테면 류보선과 박혜경은 강민주의 변화가 여성 주체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보다 모성을 여성 고유의 속성으로 재확인함으로써 작품의 전복성을 약화한다고 평가한 바 있다.²⁸⁾ 이처럼 당시 비평에서 모성성은 단순한 인물의 성격이나 서사적 가치가 아니라, 작품의 페미니즘적 성취와 후퇴를 판별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 기능하는 면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모성의 퇴행으로 판정되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김양선과 김은하는 강민주가 백승하를 지배하려던 태도에서 벗어나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변화를 폭력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읽는데, 백승하의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매개로 두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고 부드러움과 모성성이 그 대안으로 제시되는 대목에서는 질문을 제기한다. “여성억압의 현실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드러움, 모성이라는 것을 여성고유의 특질로 여기는 한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의 힘으로 전화하기는 힘들”다는 논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모성적인 가치가 바람직한 한계에 관한 추상적인 찬반으로 환원되기 어렵다.²⁹⁾ 그보다, 작품이 폭력적인 관계를 벗어날 가능성을 찾더라도 그 가능성을 여성의 본래적 성품에 맡긴다면 관계를 만들어온 현실의 조건은 바뀌지 않는다는 지적에 가깝다. 이들의 비판은 강민주가 백승하에게 마음을 연다는 사건보다, 그

28) 류보선, 『경이로운 차이들』, 문학동네, 2002; 박혜경, 「폐허 속에서 일구는 희망의 연대—양귀자의 작품세계」, 『문학의 신비와 우울』, 문학동네, 2002.

29) 김양선·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과 사회』 4, 한국여성연구소, 1993, 102-125면.

사건이 어떤 여성적 속성의 발현으로 해석되고 정당화되는가에 초점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모성성을 긍정하는 서사만이 아니라 모성을 거부하는 서사 역시 동일한 비평적 난점에 놓여 있었다는 데 있다. 심진경에 따르면 은희경, 배수아, 전경린, 조정란, 서하진, 차현숙 등 1990년대 여성 작가들의 작품에서는 공통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거부’가 나타나며, 그 결과 모성성이 여성성의 구성 요소에서 배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전략은 가부장적 여성상과 보수적 가족질서를 비판하는 효과를 갖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성을 여성성에서 제거하는 과정 역시 여성성과 모성을 본래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다는 점에서 생물학적 환원주의를 역설적으로 반복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심진경은 모성성을 임신·출산·수유와 같은 생물학적 속성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범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³⁰⁾ 결국 모성을 부정하는 전략과 모성을 긍정적으로 복원하는 전략은 서로 반대 방향을 향하면서도 동일한 딜레마를 공유한다. 전자는 여성의 신체적·경험적 특수성을 소거할 위험을, 후자는 모성을 다시 여성의 본질적 속성으로 고정하거나 신비화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비평이 직면한 문제는 모성을 긍정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의 선택이 아니라, 모성을 여성성의 본질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여성의 구체적인 삶과 사회적 경험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에 있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성성이 이론적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운 이중 구속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대 비평은 이를 핵심적인 개념으로 지속적으로 호출했다는 사실이다. 이선옥이 『선택』의 ‘큰 어머니’를 신현모양 처론으로 비판하고, 김양선과 김은하가 강민주의 변모를 여성고유의 특질로의 퇴행이라고 평가한 것은 모두 모성성을 작품의 페미니즘적 성취와

30) 심진경, 「모성의 서사와 90년대 여성소설의 새로운 길 찾기」, 『여성과 사회』 9, 한국여성연구소, 1998.

한계를 가늠하는 비평적 준거로 사용한 사례다. 이처럼 당대 여성문학비평은 모성성이라는 개념의 비평적 효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이 어떠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성되고 어떤 서사적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끊임없이 판별하고자 했다. 모성성을 여성적 차이의 근거로 의미화해야 할 필요와 그것을 여성의 본질로 고정해서는 안 된다는 경계가 충돌하면서, 모성은 작품의 페미니즘적 성취와 한계를 둘러싼 상반된 해석과 판단 기준을 산출했다. 그런 점에서 모성성의 본질주의적 위험은 당대 비평이 극복하지 못한 단순한 한계라기보다, 그 비평적 언어와 입장을 분화시킨 구성적 긴장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4. ‘여성성’의 비고정화와 신비화—전경린 소설을 둘러싼 논쟁

3장에서 살펴본 모성성의 문제가 여성적 차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를 둘러싼 것이었다면, 4장에서 다룰 문제는 여성성을 고정된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문학적으로 재현할 것인가에 있다. 여성을 부재와 균열, 유동성과 경계 넘기의 형상으로 사유하는 방식은 여성성을 고정된 본질로부터 풀어놓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을 비가시성과 비언어성, 부정성의 영역에 머물게 한다는 비판을 낳기도 했다. 광기나 침묵, 열린 결말과 수수께끼 같은 형상을 여성성과 긴밀하게 연결하는 재현 방식은 여성을 고정된 본질에서 해방하려는 시도인 동시에, 역설적으로 여성을 끝없이 포착 불가능한 존재로 만드는 효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여성문학에서 여성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재현의 기능성이자 한계로 작동한 양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는 전경린 소설을 둘러싼 비평을 꼽을 수 있다. 황현산은 『염소를 모는 여자』 해설 「운명 만들기 또는 만나기」에서 전경린의 소설을 “정념과 귀기”,

“여성다움의 규범 아래 가려진 본능의 몸부림, 불온한 정열, 광기의 그림자”로 설명하며 여성성을 기존 규범을 넘어서는 정동의 차원에서 읽어낸다.³¹⁾ 황중연 역시 「이줄테의 손녀들, 그들의 불륜의 소설」에서 전경린과 서하진의 소설이 페미니즘적 메시지를 전면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오히려 미덕으로 평가하며, 중요한 것은 여성에 대한 정치적 이해가 아니라 현실을 넘어서는 자유와 정열의 열망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그는 두 작가의 소설이 여성을 신성한 광란과 자유의 비원을 매개하는 존재로 형상화한다고 해석한다.³²⁾ 황도경 또한 「반란의 성, 반역의 삶—전경린론」에서 전경린 소설의 비정상성, 광기, 욕망, 신비를 마녀와 늑대여인 신화에 빗대어 새로운 여성적 삶의 형식으로 이해하면서, 이러한 매혹적인 야성의 세계가 어리석은 신비화나 오만한 추상화로 빠질 위험이 작품이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한다.³³⁾ 이러한 독해의 공통된 미덕은 여성문학을 가부장제 비판이나 여성 억압의 고발이라는 의의로 환원되지 않는 정념과 욕망, 광기와 비이성에 문학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데 있다. 특히 이러한 논의들은 여성적인 것을 신비와 초월의 영역으로 이해한다는 공통된 전제를 공유한다. 또한 여성적 차이를 남성적 상징질서가 포착할 수 없는 초과의 영역에서 사유한다는 점에서 이리가래의 논의와 일정한 친연성을 지니지만, 여성적 차이의 구체적 내용을 사유하기보다 여성을 남성·이성·근대의 바깥을 가리키는 상징적 형상으로 위치시키는 데 무게를 둔다. 황도경이 스스로 신비화의 위험을 언급했음에도 이를 작품의 향후 과제로 유보했다는 사실은³⁴⁾, 이러한 재현 방식의 긴장이 이미 동시대 비평

31) 황현산, 「운명 만들기 또는 만나기」,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32) 황중연, 「이줄테의 손녀들, 그들의 불륜의 소설—서하진, 전경린의 소설에 관하여」, 『문학동네』, 1996년 겨울호.

33) 황도경, 「반란의 성, 반역의 삶—전경린론」,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34) 위의 글. 그는 “그의 소설은 실로 불온한 정열과 광기와 일탈의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는 하나의 용광로와 같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성의 운명이라는 낯익은 주제를 전혀 낯선 방식으로 만난다. 아버지에 의해 처형된 마녀, 여성들의 내면 속에 원죄의식처럼 자리잡고 있는

내부에서도 감지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동일한 텍스트를 둘러싼 다른 비평적 독법들을 함께 살펴보면, 흥미로운 해석의 분기가 발견된다. 이를테면 이선옥·김은하는 『염소를 모는 여자』를 은희경의 소설과 함께 논하며, 주인공이 상징적 존재인 ‘염소’를 따라 집을 나서는 결말이 현실과 맞서는 적극적인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모호한 상징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한다.³⁵⁾ 한편 김미현은 「소설쓰기, 삶이 지고 가는 업(業)」에서 『염소를 모는 여자』를 다루며, 전경린의 여성뿐 아니라 남성 역시 운명과 상실을 겪어온 존재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남자의 기원」에서 남성 또한 “상실한 나라를 가진 고독한 존재”이며, “어미의 몸 안에서 누구나 한때는 고통 모르는 담수어였던 모든 아들들”이라는 것이다.³⁶⁾ 이러한 독해는 전경린 소설의 운명과 상실을 여성에게만 고유한 경험으로 한정하지 않고, 남성 인물에게까지 확장해 읽는다는 점에서 앞선 독법들과 또 다른 판단의 축을 이룬다. 이처럼 같은 텍스트는 여성적 차이의 형상으로도, 현실적 실천의 문제로도, 나아가 성별을 넘어선 인간의 보편적 조건으로도 서로 다르게 의미화되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하나의 독법이 텍스트의 올바른 의미를 독점한다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해석의 분기는 1990년대 비평이 전경린의 소설을 매개로 여성적인 것을 어떠한 개념과 언어로 사유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 다른 판단 기준을 형성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비와 정동, 현실과 실천, 보편성과 차이라는 여러 좌표 위에서 여성성의 의미가 다르게 구성되었

이 마녀는 이성과 합리, 질서와 규율 위에 세워진 아버지의 집을 무너뜨리며 새로운 생명의 근원으로 부활한다”고 서술한다. 흥미로운 것은 황도경이 이 상찬의 위험을 완전히 모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같은 글의 결론에서 “매혹적인 아성의 세계에의 강조가 어리석은 신비화나 오만한 추상화로 빠져들지 않게 하는 것”을 전경린 소설이 마주한 남은 과제로 명시적으로 제시하며 글을 맺는다. 즉 비체화된 여성성을 상찬하면서도 그 상찬이 신비화로 미끄러질 위험을 동시대 비평이 이미 감지하고 있었던 셈이다.

35) 이선옥·김은하,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의미—90년대 여성소설의 흐름」,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36) 김미현, 「소설쓰기, 삶이 지고 가는 업(業)」, 『창작과비평』 1996년 겨울호, 358-359면.

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기는 그 자체로 당대 여성문학비평의 비평적 언어가 분화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러한 해석의 분기는 이후의 페미니즘 비평이 문제 삼은 재현 방식에서 더욱 선명하게 확인된다. 이선옥은 전경린의 『아무 곳에도 없는 남자』를 두고 “결국 부족한 것은 사랑이었다”는 태인의 고백이나 ‘우리들이 깊은 상처를 벌리며 끌어안게 되는 절대적인 사랑’, ‘진실보다 더 깊고 영원보다 더 먼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정서현의 깨달음 등, 이 작품 곳곳에서 사랑은 영원성이나 절대성으로 신비화되어 서로 다른 사랑의 이념들이 갈등하는 내용과 균열을 일으킨다”고 지적한다.³⁷⁾ 흥미로운 것은 이선옥이 사용하는 어휘가 다름 아닌 ‘신비화’라는 점인데, 이는 황도경이 스스로의 상찬에 대해 과제로 남겨두었던 바로 그 단어이자, 이선옥·김은하가 『염소를 모는 여자』를 두고 이미 지적했던 “모호한 상징”이라는 진단과도 정확히 공명하는 것이다. 즉, 전경린의 소설을 상찬한 진영과 비판한 진영은 같은 텍스트의 같은 자리, 즉 사랑과 정열이 구체적 사회관계로부터 분리되어 영원성·절대성이라는 추상으로 처리되는 지점을 공통으로 지목했으되, 한쪽은 그것을 여성적인 것의 초월적 자질로 승격시켰고 다른 한쪽은 그것을 정치적 무력함의 증거로 읽어낸 것이다.

그러나 이 상찬과 비판의 정면충돌은 단순한 견해차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전경린 소설이 보여주는 탈주가 언제 여성적 차이에 대한 적극적인 긍정이 되고 언제 여성성의 신비화로 미끄러지는지, 그 경계는 텍스트에 미리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 비평은 동일한 텍스트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탈주가 신비화로 전환되는 구체적인 조건, 즉 현실과 맞서는 적극적 방법의 부재, 사회관계로부터 분리된 모호한 상징 처리, 실현 불가능성으로 인한 낭만화를 서로 다르게 판별했다. 한쪽은 정념과 광기, 신비를 기존의 여성 규범을 초과하는 문학적 가능성으로 승인했고, 다른

37)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27-42면.

한쪽은 그것이 여성적 욕망을 구체적인 사회관계로부터 분리하여 정치적으로 무력하게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성성을 고정된 본질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시도가 ‘탈주의 가능성’과 ‘신비화의 위험’을 동시에 낳았다는 점에서, 전경린 소설을 둘러싼 비평적 분기는 여성성의 비고정화가 지닌 이중구속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이중구속은 당대 비평이 극복하지 못한 단순한 한계가 아니라, 여성적 욕망과 문학적 탈주를 평가하는 상반된 기준을 산출하고 비평적 입장을 분화시킨 구성적 긴장으로 작동했다.

5. 결론

본고는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에서 본질주의적 범주의 필요와 그에 대한 반본질주의적 경계가 충돌하면서도 서로를 필요로 했던 관계를 ‘구성적 긴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먼저 1990년대 페미니즘 이론의 수용을 둘러싼 논쟁을 검토함으로써, 여성적 차이를 적극적으로 의미화할 경우에는 그것을 고정된 본질로 환원할 위험이 발생하고,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해 여성 범주를 해체할 경우에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근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이중구속을 확인했다. 이어 모성성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여성성을 본질화하지 않으려는 시도와 여성의 경험적·역사적 특수성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서로를 전제하면서도 동시에 위협하는 구조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여성성의 비고정화와 재현을 둘러싼 논쟁에서는 여성적 차이를 고정된 내용으로 규정하지 않으려는 전략이 신비화와 모호화라는 또 다른 위험을 낳았으며, 다양한 비평적 독법이 실제 작품을 통해 그 경계를 탐색하고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990년대의 페미니즘 이론 수용과 여성문학비평에서 여성적 차이에 대한 긍정과 본질주의 비판이 서로 분리된 과제로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김영희·이명호·김영

미와 대혜숙의 논의가 여성적 차이의 본질화와 여성 범주의 무화라는 상반된 위험을 동시에 경계했다면, 구체적인 작품비평에서는 모성성, 현모양처, 여성 고유의 특질, 신비화와 같은 비평적 언어를 통해 여성적 차이의 의미와 한계가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론적 논쟁과 개별 작품비평 사이의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일률적으로 확정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당대 여성문학비평이 ‘모성성’과 ‘여성성’을 작품의 페미니즘적 성취와 한계를 판단하는 핵심적인 준거로 사용하면서도 그 개념이 지닌 본질주의적 위험을 끊임없이 문제 삼았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연구사와도 일정한 차이를 가진다. 최근 연구들은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을 문단의 제도적 조건이나 독자 공동체, 젠더 권력의 재편이라는 측면에서 풍부하게 재구성해왔다. 본고 역시 그러한 성과를 수용하면서도, 당대 비평이 여성적 차이를 어떠한 개념과 판단의 언어로 구성했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본질주의적 위험이 실제 작품비평의 입장을 어떻게 분화시켰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했다. 무엇보다 본고는 본질주의를 당대 여성문학비평에 남아 있던 미숙한 이론적 잔여로 평가하는 대신, 그에 대한 비판과 재전유가 모성·육망·탈주·신비화를 둘러싼 상반된 비평적 판단을 촉발하고 당대 비평의 언어를 분화시킨 조건으로 재해석하고자 했다.

이러한 특징은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이 이전과 이후의 시기 사이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이 여성 억압의 사회구조와 집단적 여성 주체의 형성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했다면,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은 그러한 정치적 필요를 이어받으면서도 여성이라는 범주의 동질성과 여성 내부의 차이를 함께 문제 삼아야 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여성성’이 탈주체·탈중심·혼종성 등을 포괄하는 문학 일반의 개념으로 확장되면서 성차의 구체성과 정치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의 특징은 여성적 차이를 고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비평적 효력을 보존하려는 긴장을 작품

해석의 중심에 놓았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의 성과와 한계는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성을 적극적으로 사유하려는 시도는 본질주의와 신비화의 위험을 끊임없이 수반했고, 그 위험을 비판하려는 시도 역시 여성적 차이 자체를 약화하거나 소거할 가능성을 함께 안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역설 속에서 1990년대 여성문학비평은 자신의 비평적 언어를 구축해나갔다. 이는 곧 한계가 전략이 되고 전략이 다시 한계가 되는 조건, 다시 말해 여성성의 곤경과 성취가 분리되지 않은 채 동시에 작동하는 비평적 조건이었다. 본고는 이러한 역설을 실패나 오독의 결과로 이해하기보다, 본질주의적 범주의 비평적 필요와 그 위험에 대한 경계가 함께 작동하면서 당대 여성문학비평의 다양한 해석과 판단 기준을 만들어낸 구성적 긴장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미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 류보선, 『경이로운 아이들』, 문학동네, 2002.
- 박혜경, 『문학의 신비와 우울』, 문학동네, 2002.
- 스피박, 가야트리 차크라보르티, 태혜숙 옮김, 『다른 세상에서: 문화정치학 에세이』, 여이연, 2008.
- 엘렌 식수, 박혜영 옮김, 『메두사의 웃음/출구』, 동문선, 2004.
- 이문열, 『선택』, 민음사, 1997.
- 이소영·정정호 엮음, 『페미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새로운 문화정치학을 위하여』, 한신문화사, 1992.
- 정정호·강내희 편, 『포스트모더니즘론』, 도서출판 터, 1989.
- 줄리아 크리스테바, 김영 옮김, 『사랑의 역사』, 민음사, 1995.
- _____, 김인환 옮김, 『사랑의 정신분석』, 민음사, 1999.
- _____, 김인환 옮김, 『시적 언어의 혁명』, 동문선, 2000.
- _____, 서민원 옮김, 『공포의 권력』, 동문선, 2001.
- _____, 유복렬 옮김, 『반항의 의미와 무의미』, 푸른숲, 1998.
- 크리스 위턴, 조주현 옮김, 『여성해방의 실천과 후기구조주의 이론』,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 토릴 모이, 임옥희·이명호·정경심 옮김, 『성과 텍스트의 정치학』, 한신문화사, 1994.
- 뤼스 이리가레, 권현정 옮김, 『성적 차이와 페미니즘』, 공감, 1997.
- _____, 이은민 옮김, 『하나이지 않은 성』, 동문선, 2000.
- _____, 김미현 옮김, 『성차의 윤리』, 동문선, 2000.
- _____, 박정오 옮김, 『나, 너, 우리』, 동문선, 1998.
- _____, 박종오 옮김, 『근원적 열정』, 동문선, 2001.

2. 논문

- 강동호, 「'언표'로서의 내면—1990년대 문학사의 비판적 재구성을 위한 예비적 고찰들」, 『한국학연구』 56,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0.
- 김미현, 「소설쓰기, 삶이 지고 가는 업(業)」, 『창작과비평』 통권 94호, 1996.
- 김미현, 「상상의 페미니즘 문학—페미니즘 문학 연구의 현황과 한계」, 『젠더프리즘』, 민음사, 2008.

- 김양선, 「2000년대 한국 여성문학비평의 쟁점과 과제」, 『안과밖』 20, 영미문학연구회, 2006.
- 김양선·김은하, 「양귀자의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에 이르는 길」, 『여성과 사회』 4, 한국여성연구소, 1993.
- 김영희·이명호·김영미,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딜레마—비역사적 여성성으로의 복귀 혹은 여성해방론의 포기」, 『여성과 사회』 3, 한국여성연구회, 1992.
- 김은하, 「1980년대, 바리케이트 뒤편의 성(性) 전쟁과 여성해방문학 운동」, 『상허학보』 51, 상허학회, 2017.
- 백지은, 「전진(하지 못)했던 페미니즘—2000년대 문학 담론과 ‘젠더 패러독스’의 패러독스」,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 배하은, 「만들어진 내면성—김영현과 장정일의 소설을 통해 본 1990년대 초 문학의 내면성 구성과 전복 양상」, 『한국현대문학연구』 50, 한국현대문학회, 2016.
- 배하은, 「혁명성과 진정성의 탈신비화—1980~90년대 문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 『상허학보』 66, 상허학회, 2022.
- 서영인, 「1990년대 문학지형과 여성문학 담론」, 『대중서사연구』 24(2), 대중서사학회, 2018.
- 손유경, 「1980년대 학술운동과 문학운동의 교착—박현채와 조한혜정을 중심으로」, 『상허학보』 45, 상허학회, 2015.
- 손유경, 「페미니즘의 포스트모던 조건」,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 심진경, 「모성의 서사와 90년대 여성소설의 새로운 길 찾기」, 『여성과 사회』 9, 한국여성연구소, 1998.
- 심진경, 「여성성 혹은 문학적 상상의 원천」, 『문예중앙』, 2005년 겨울호.
- 안남연, 「이문열의 『선택』과 페미니즘 논쟁」, 『한국문예비평연구』 35,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11.
- 안지영, 「여성주의 리얼리즘의 문화정치학—『또 하나의 문화』의 발간 주체와 실천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연구』 63, 한국현대문학회, 2021.
- 이선옥, 「신현모양처, 사라지는 것에 대한 미혹(迷惑)—이문열의 『선택』」, 『실천문학』 47, 1997.
- 이선옥, 「사랑의 서사, 전복인가 퇴행인가」, 『실천문학』, 1999년 여름호.
- 이선옥·김은하, 「여성성의 드러내기와 새로운 정체성 탐색의 의미—90년대 여성소설의 흐름」, 『민족문학사연구』 11,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소, 1997.
- 이인화, 「이문열의 『선택』을 둘러싼 해석 논쟁」, 『문학교육학』 36, 한국문학교육학회, 2011.
- 이혜령, 「빛나는 성좌들—1980년대, 여성해방문학의 탄생」, 『상허학보』 47, 상허학회,

- 2016.
- 이혜령, 「여성해방문학의 저자란 무엇인가」, 『대중서사연구』 25(1), 대중서사학회, 2019.
- 임지연, 「1990년대 여성시의 이상화된 판타지와 역설적 근대 주체 비판」, 『한국시학연구』 53, 한국시학회, 2018.
- 조연정, 「1980년대 문학에서 여성운동과 민중운동의 접점—고정희 시를 읽기 위한 시론」, 『우리말글』 71, 우리말글학회, 2016.
- 조연정, 「『문학동네』의 '90년대'와 '386세대'의 한국 문학」, 『한국문화』 81,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8.
- 조연정, 「1990년대 젠더화된 문단에서 페미니즘하기—김정란과 허수경을 읽으며」, 『여성문학연구』 52, 한국여성문학학회, 2021.
- 최가은, 「'90년대'와 '여성문학특집'—『문학동네』 1995년 여성문학특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75,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2021.
- 태혜숙, 「포스트모던 여성해방론의 현황과 과제」, 『이론』, 1993.
- 한경희, 「비극적으로 아름다워야 한다는 조건—1990년대 여성문학의 제도 문학 편입 맥락과 그 과정」, 『현대소설연구』 83, 한국현대소설학회, 2021.
- 한경희, 「여성과 경험의 괴리—1990년대 문학장에서 '여성적 글쓰기' 비평 담론의 형성 및 전개」, 『구보학보』 35, 구보학회, 2023.
- 황도경, 「반란의 성, 반역의 삶—전경린론」, 『우리시대의 여성작가』, 문학과지성사, 1999.
- 황중연, 「이줄테의 손녀들, 그들의 불륜의 소설—서하진, 전경린의 소설에 관하여」, 『문학동네』, 1996년 겨울호.
- 황현산, 「운명 만들기 또는 만나기」, 전경린, 『염소를 모는 여자』, 문학동네, 1996.
- Spivak, Gayatri Chakravorty, “Criticism, Feminism and the Institution: An Interview with Gayatri Chakravorty Spivak,” interview by Elizabeth Grosz, *Thesis Eleven*, vol. 10-11, no. 1, 1985, pp. 175-187.

<Abstract>

Essentialism as a Constitutive Tension

—Maternity and Femininity in Korean Feminist Literary
Criticism of the 1990s

In, A-Young

This Article examines how Korean feminist literary critics in the 1990s relied on categories such as “women”, “maternity” to make gendered differences visible, even as they questioned the essentialist assumptions those categories could carry. I describe the interplay between these two demands as a “constitutive tension.” Affirming women’s differences risked treating them as fixed attributes; rejecting such categories altogether risked obscuring women’s specific experiences and wakening the political force of feminist criticism.

This article first examines contemporary discussions surrounding the reception of feminist theory in the 1990s and identifies the double bind produced by the affirmation of feminine difference and the deconstruction of the category of women. It then draws on the theories of maternity developed by Julia Kristeva, Luce Irigaray, and Hélène Cixous to analyze critical debates over Yang Gui-ja’s *I Desire What Is Forbidden to Me*. This analysis demonstrates how conflicting positions on the affirmation and essentialization of maternity generated divergent criteria for evaluating the feminist achievements of literary works. The article then examines competing interpretations of Jeon Gyeong-rin’s fiction to show how the refusal to define femininity through fixed attributes opened possibilities for feminine transgression while also risking the

mystification and abstraction of femininity.

Essentialism, therefore, was not simply a theoretical error that persisted in Korean feminist literary criticism of the 1990s. Rather, criticism and reappropriation of essentialist categories produced diverse interpretations and evaluative criteria. The constitutive tension surrounding essentialism generated both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feminist literary criticism in this period, while differentiating its critical languages for conceptualizing feminine difference.

Key words: Korean feminist literary criticism of the 1990s, essentialism, constitutive tension, feminine difference; maternity, femininity, feminist literary criticism

투 고 일: 2026년 8월 18일

심 사 일: 2026년 9월 7일

게재확정일: 2026년 9월 10일

수정마감일: 2026년 9월 28일